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22

물로 갈라진 바닷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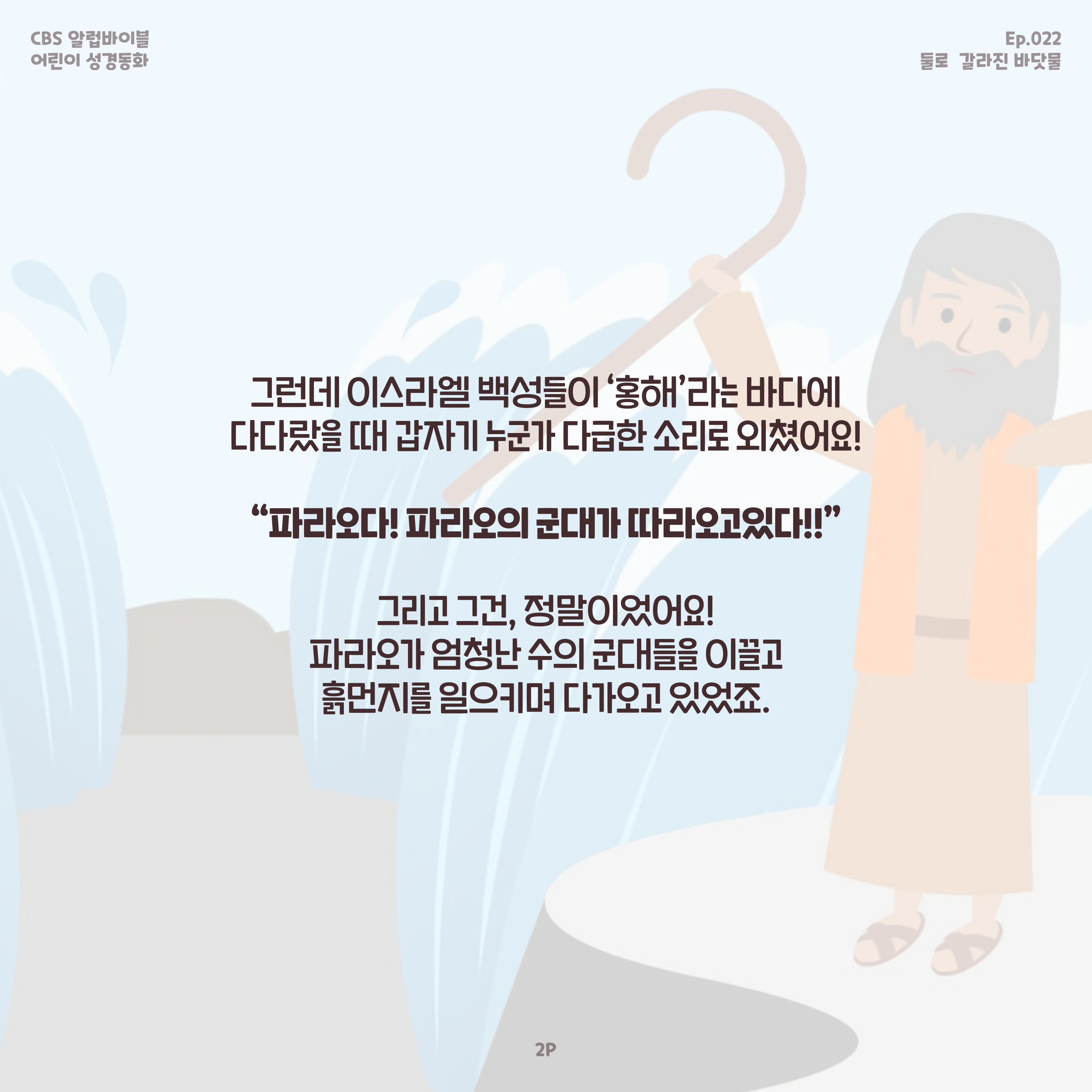
(출애굽기 13:20~14:31)



마침내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걱정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요즘 어른들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름 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누군가 다급한 소리로 외쳤어요!

“파라오다!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고있다!!”

그리고 그건, 정말이었어요!
파라오가 엄청난 수의 군대들을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밑에서 종노릇이나 하던 이스라엘 녀석들을
고분고분 보내주다니...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던 모양이야.
녀석들을 한 놈도 바바짐없이 잡아 오거라.
이랴! 달려라. 이랴!”**

수백 대의 전차를 탄 이집트 군사들은
바바른 속도로 홍해를 향해 달려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요.
어차피 죽을 거면 이집트 땅에서
죽으면 됐을 것을 모세 당신은 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웁소! 나는 예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냥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제발 좀 내버려두라고 말ियो.
이게 다 모세 때문에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다구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다니
하지만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이런 반응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상하셨던 거거든요.
모세는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만 믿고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 군대와
싸워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웠어요.
파라오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서
이제는 금방이라도 따라잡힐 듯
코앞까지 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백성들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 사이로 이동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구름 기둥 뒤쪽, 이집트 군대가
있는 곳은 어두컴컴해졌고
구름 기둥 앞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대낮같이 환해졌어요.

어둠 속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이집트 군사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요.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깜깜해졌지?”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녀석들이
눈앞에 있었는데 앞을 볼 수 없으니 원!
아야, 아야! 누가 내 발 밟았어?”**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이 양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바닷물은 계속 밀려가 거대한 벽처럼
양옆에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마른 길이 드러났어요.**

**“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릴 위해 바다에 길을 팔아 주셨어요!
오..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리라고 없지!”**

**조금 전까지 모세에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 마른 길을 통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죠.**

그 사이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파라오의 군대들도 바다 사이에 난
길을 발견했어요!

“보아라! 저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들이 배껴나갔다!
우리도 전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바다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 이랴! 이랴!”

파라오의 명령에
모든 군대가 바다로 돌진했어요.
하지만 중간이니 왔을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백 대의 전차 바퀴들이 갑자기 벗겨져서
군사들이 움짱달싹할 수 없게 된 거죠!

전차를 끌던 말들은 다 고꾸라져 버렸고
전차에 타 있던 군사들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나 죽네..!바다 한가운데서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냥 돌아가자 뭐가 불길해!
이스라엘이고 뭐고 우리부터 일단 살고 보자고!”

**이집트 군사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바다를 건너 모세가 건너편에서
다시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더니
벽처럼 세워져 있던 바닷물이
파라오의 군대를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수 많은 이집트 군사들은 바닷물 속에
그대로 잠기게 되었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말로 정말 지긋지긋한
이집트로부터, 파라오로부터 벗어나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며 그 분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까지
가기에는 아직 오랜 여정이 남아있어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